공식선거운동 첫날 후보들 '거리로'… 민속오일시장서 격돌

제주시갑 선거구

힘 있는 일꾼 강조… "4·3특별법 완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기호1번)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출정 유세를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이날 유세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총출동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철남·송창권·이승아 도의원을 비롯해 배우 최종원(전 국회의원)씨가 지원유세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날 송 후보는 제주경제를 살릴 '힘 있는 일꾼'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공약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송 후보는 "제주시 갑을 대한민국 갑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면서 "저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00조원 등을 푸는데 이 돈을 가져와야 한다.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송재호"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은 하늘이 내린 과제"라며 "이 과제를 해결해 제주를 단단한 초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송재호를 지원해 달라"며 "민생 우선, 밥상을 먼저 챙기겠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오은지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민주당 권력독점 타파를… 기회달라"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기호2번)는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출정식을 갖고 본격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장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 앞서 노형오거리에서 구자헌·김용철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큰절 거리인사를 시작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한철용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 등 제주 선대위가 자리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타파'를 주장한 장 후보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게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특히 "제주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정책과 구체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제안하고 세부적인 농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코로나19 이후에 제주가 먹고 살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 문제 챙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따끔한 회초리를 이번 총선에서 보여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장 후보는 경영·공직 경험 등을 내세우며 "지난 30년 동안 준비한 제가 한번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오은지기자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이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 뽑아야"

정의당 고병수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기호 6번)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고 후보는 이날 "지난 16년 동안 같은 당, 같은 후보를 선택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은 못 하고, 제주 제2공항 갈등에 뒷짐 진 정당이 어디냐"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쪽(더불어민주당)도 저쪽(미래통합당)도 아닌 제주도를 살릴 고병수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고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은 힘들고, 관광업과 골목상권도 어렵다고 하는데 제주 정치인들은 대책이 없다"며 "정의당은 골목상권살리기센터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제주 노동자들은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라며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제주환경을 훼손하고, 땅값만 올려놓았다. 우리 정치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제주4·3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릴 사람, 제가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박차고 나왔다"며 "이제는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 도민들을 만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불공정한 반칙 반드시 깰 것"

무소속 박희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기호 9번)는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열린 시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배우자, 딸과 함께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도민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해왔지만, 이번 총선 후보로 서류조차 내보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1등이 4등한테 공천권을 빼앗겼다. 이 불공정한 반칙을 반드시 깰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이런 불공정은 남의 일인 줄만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수모를 당하고 불공정한 삶 속에서 살아갈지 이해가 된다"며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후손, 젊은이들의 무릎이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지난 7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제주4·3 문제도 국가가 배상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이라면서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땅을 내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집을 분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기자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시을 선거구

"섬이라는 한계 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기호 1번)는 2일 선거운동의 첫 시작을 제주시 일도2동 농협 공판장에 시작했다.

오 후보는 "제주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청년이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해운물류체계 혁신으로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겠다. 공익형직불제 성공 등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송은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2일 제주시 일도2동 농협 공판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선대위 구성… 상임위원장엔 김완근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기호 2번)는 선거운동 첫날인 2일 315명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김완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낙점됐고,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유종성 전 제주도 안전실장, 이연봉 변호사, 홍성수 전 4·3유족회장, 한정효 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 김명석 전 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장이 참여한다. 송은범기자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2일 315명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부상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당근·감자·양파·무우 농가에 희소식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는데에 하하농법 이 최선이다

썰파고	· 나노 유황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 · 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 양자에너지와 희토류 생분해 복합제재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우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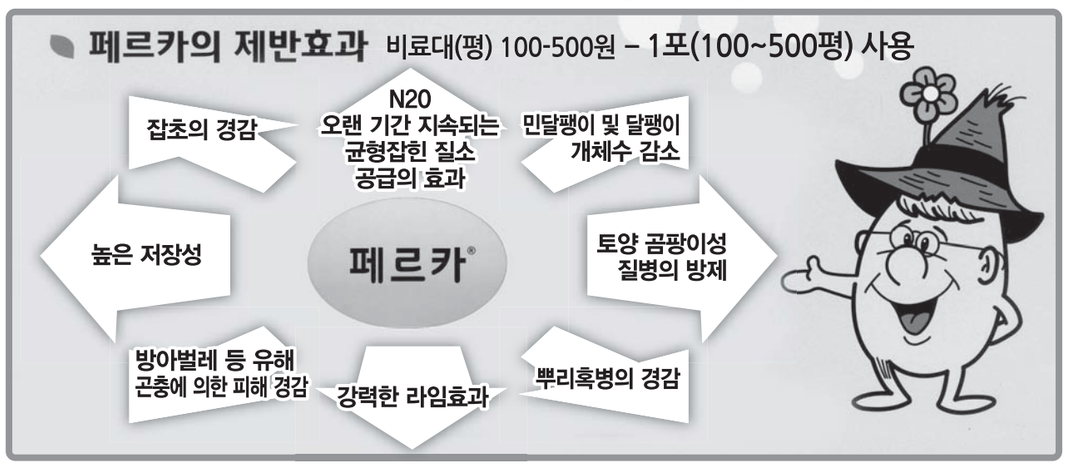
썰파고와 V패스 사용법

배추·양배추 브로컬리·양파	· 소 독 : 정식전 묘종침지(썰파고+V패스 12.5말 희석) · 1차 살포 : 파종 10~15일후 썰파고+V패스 살포 · 2차 살포 : 11월 찬바람이 불면 살포
마 늘	· 파종전 침지(썰파고+V패스 12.5말 희석) · 1차 살포 : 멀칭전 살포 · 2차 살포 : 11월 찬바람이 불면 살포 · 3차 살포 : 2월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감자·당근·무우	· 1차 살포 : 파종후 10~15㎝ 싹이 나오면 살포 · 2차 살포 : 11월 초 찬바람이 불면 살포

※ 당근 · 감자 · 양파 농가에서 농약없이 오직 썰파고와 V패스 로 재배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음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취급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엽면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재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